Art

아트인컬처
March 2015

Special Feature /
World Art Events:
Biennales & Art Fairs 11

Artist /
양혜규, 이슈경

Theme Special /
Brain & Art
뇌과학과 예술의 크로스오버

Critic /
이중섭 신화, 9개의 진실

Interview /
이구열, 최초의 미술기자

3rd Art Basel Hong Kong

❶ 3. 15~17 ❷ 홍콩 컨벤션&익스히비션센터(HKCEC) ❸ 마크 스피글러(Marc Spiegler), 아델린 우이(Adeline Ooi)
❹ 갤러리, 디스커버리, 인카운터, 인사이트, 필름, 매거진 등 ❺ www.artbasel.com

올해로 3회를 맞은 아트바젤홍콩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아트페어다. 아시아와 서구의 주요 갤러리가 5:5 비율로 참가하고 20세기 초 미술부터 동시대의 미술까지 총망라해 전 세계 슈퍼 컬렉터들이 꼭 들르는 '필수 코스'가 됐다. 올해부터는 개최 시기를 5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. 5월에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위해 유럽에 머물 컬렉터들을 앞서 홍콩으로 초대하겠다는 전략이다. 결국 3월 개최를 고수해 온 아모리쇼, 아트두바이 등과 맞붙게 됐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있다는 주최측의 강한 자신감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. 눈에 띄는 변화가 또 있다. 새 디렉터로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델린 우이가 취임한 것. 갤러리스트 출신으로 아트바젤 VIP매니저를 거친 인물이다. 지난 1월 Art와 직접 만나 "동양과 서양 간의 다리 역할"을 하되, 특히 "컬렉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주력"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올해 페어는 어떤 모습일까? 메인 섹션 〈갤러리〉에는 179개 갤러리가 참여한다. 마리안굿맨, 하우저&워스, 제임스코한갤러리, 샹탈크루젤 등 주요 갤러리가 2년 연속 참여한다. 한국의 국제, 학고재, 아라리오, PKM, 스케이프 또한 활약할 예정이다. 처음 참여하는 곳으로는 안드레아로젠, 1335마비니 등이 눈에 띈다. 페어의 얼굴을 결정하는 〈인카운터〉 섹션은 입구, 중앙, 출구 등 주요 동선에 대형 스케일 조각 혹은 설치 작품을 배치한다. 시드니의 현대미술 기관인 아트스페이스 상임이사 알렉시 글래스-칸토가 큐레이터로 선임됐다. 참여 작가는 자오자오, 에코 누그로호, 이우환, 김태윤, 탈루 L.N 등 총 20명이 발표된 상태.

〈인사이트〉 섹션은 아시아권 갤러리 34개가 참여해서 큐레이팅 프로젝트를 선보인다. 갤러리별로 소속 작가 개인전, 테마별 그룹전 등이 다양하게 열릴 계획이다.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로시&로시 부스에서 열리는 캄보디아 아트씬의 '샛별' 리앙 섹콘 개인전. 최근 아트마켓에서 주가를 올리는 필리핀 작가 폭롱 아나딩도 1335마비니 부스에서 만날 수 있다. 한국에서는 갤러리EM이 성낙희 장현선을, 갤러리인이 김명범을, 리안갤러리가 김승주를 소개한다.

〈디스커버리〉 섹션은 전 세계 20개 갤러리가 참여해 주목할 만한 신진 작가의 개인전 혹은 2인전을 선보인다. 처음 참여하는 갤러리가 6개로, 그 중

하이라이트는 블라인드스팟갤러리가 선보이는 트레버 영의 사진 설치가 될 듯하다. 이 갤러리의 2014년 기획전 〈780s〉에 참여해 젊은 세대의 초상을 담담하게 담아 인기를 끈 작가다. 매일 작품을 바꿔 다는 퍼포먼스 성격의 링웬과 얀 콩 2인전(스타갤러리), 존 패트릭 월쉬 3세의 방음실 설치(나이트갤러리) 등도 기대된다. 그 밖에 〈필름〉 섹션은 영화감독 겸 프로듀서 리젠화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휘한다. 7개의 테마 아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, 마이클 크레이그-마틴, 첸란 등 작가 36명의 작품 38점을 선보인다.

상하이, 싱가포르가 경제자유구역 체제로 돌아서는 가운데, 아트바젤홍콩은 예년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까? 마크 스피글러 총괄 디렉터는 "두려움은 전혀 없다"고 장담했다. 검열에서 자유로운 문화적 토양, 서구식 법 체계, 지리적 이점 등 홍콩만의 강점이 막대하다는 것. 아트바젤홍콩의 시초 아트바젤도 스위스 소도시에서 열리지만, 런던의 프리즈, 파리의 피악(Fiac), 암스테르담 TEFAF, 마드리드의 ARCO 등 주요 대도시의 페어와 비교해도 우위를 점한다. 아트바젤홍콩의 '보편성'이 2015년 글로벌 아트마켓에서도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.